

## 도시와 농촌 윈-윈 네트워크

김 정 호

소속 : 前 농림부 차관  
전화 : (02) 500-1503~4  
E-mail : kjh0507@maf.go.kr

지금 유럽에는 '다운시프트(downshift)족' 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생활형태가 늘어난다고 한다.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벗어나 금전적 수입과 사회적 지위에 연연하지 않고 주거지를 아예 도시 외곽이나 전원으로 옮겨 느긋하게 삶을 즐기기 위함이다. 러시아에서도 주말이나 바캉스 시즌이면 대부분 '다차(dacha)'라 불리는 일종의 시골 별장을 찾아 채소 등을 가꾸며 소일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에서 2만달러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우리도 이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생각하게 되는 시점에 와 있다. 지난 60년대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후 우리는 그동안 '잘 사는 것 = 돈 많이 버는 것'이라는 등식에 빠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은 극심해졌고 반면에 농촌은 그야말로 공동화 현상이 한계상황에 도달해 있다.

이러한 지역간, 도·농간 심각한 불균형은 국가의 성장 잠재력 확충에 큰 저해요인으로 적용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도·농간, 지역간 균형발전 문제야말로 우리가 선진국 진입을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 농촌, 그 자체가 소득원이 될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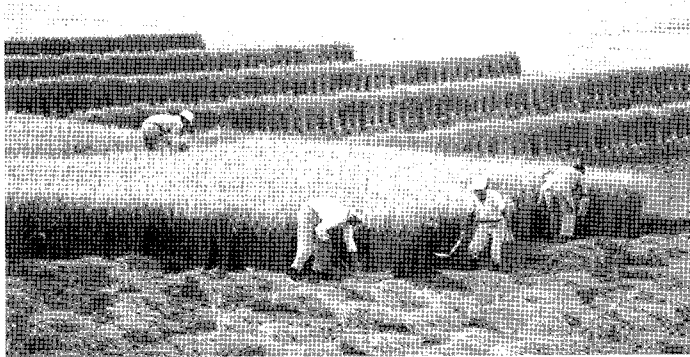
우리도 이제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주5일 근무제는 우리의 생활패턴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도(都) 2촌(村)'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는 1주일 중 5일은 도시에서 일하고, 2일은 농촌에서 휴식을 취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관 통계에 의하면 2002년 4억명이던 국내 관광인구가 10년 뒤에는 6억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1억 5,000만명이 농촌을 찾아 1인당 5만원씩만 소비할 수 있게 한다면 연간 7조 5,000억원의 돈이 농촌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이야기이다. 이 금액은 우리나라 전체 농가가 쌀농사를 지어서 번 총소득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농촌에는 아름답고 고즈넉한 자연공간, 역사가 살아 숨쉬는 생생한 유적지, 각종 문화축제나 영농체험현장 등 도시민을 반겨줄 소재가 매우 많다.

전남 함평의 경우 나비와 지역 특산물을 내세워 지난해 250여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고 이로 인



한 경제적 이득만 해도 100억원에 달한다니 그야말로 도시민도 즐겁고 농촌도 활력을 얻는 1석 2조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사례는 지금 농촌현장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농촌발전을 위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농촌다움(어메니티, amenity)’은 그 자체로 하나의 훌륭한 상품이 된다. 농사짓기·과실따기 등 농촌체험을 상품화하는 것, 농촌의 특성을 살린 축제를 여는 것, 별장 용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것, 노령화된 부부가 여유 있는 방을 활용해서 민박을 제공하는 것, 각종 오락 및 스포츠용 시설을 제공하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 사람과 돈이 농촌에 모이도록 해야

농촌을 우리 모두의 삶의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사람과 자본이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특히 민간자본이 농촌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300평 이하의 농지를 도시민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금년부터 농촌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에 대해 1가구 2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도록 한 것은 다 그런 이유

에서다.

한계농지나 폐교 등도 잘 가꿔서 실버단지나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고 민간자본으로 전원주거단지나 단지형 펜션이 들어선다면 도시와 농촌이 모두 윈-윈 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전국적으로 잘 발달된 도로망이 있고, 농촌에도 초고속인터넷이며 케이블TV 등이 보급돼 있다.

정부는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꽃길이나 마을 숲 등 농촌이 더욱 농촌다움을 갖추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프랑스처럼 [경관직불제]를 도입해 아름다운 농촌을 가꾸는데 농업인들이 적극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농촌관광 포털사이트를 확충하여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이나 단체 등이 농촌마을과 자매결연을 맺는 ‘1사(社)1촌(村)운동’ 활성화도 하나의 방법이다.

도시에 넘쳐나는 사람과 자본이 농촌으로 유입되고, 그 대신 농촌은 우리 국민에게 진정으로 여유로운 삶의 장을 제공하게 되는 이러한 도·농간 상생의 네트워크야말로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농촌지역개발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 수 없다.

■ 자료 : 2004년 1월 19일자 파이낸셜 기고